

박사학위논문
북한 문학번역과 수용의 프레이밍 연구
- Gone With the Wind를 중심으로 -

이은정(Eunjung Lee)

숙명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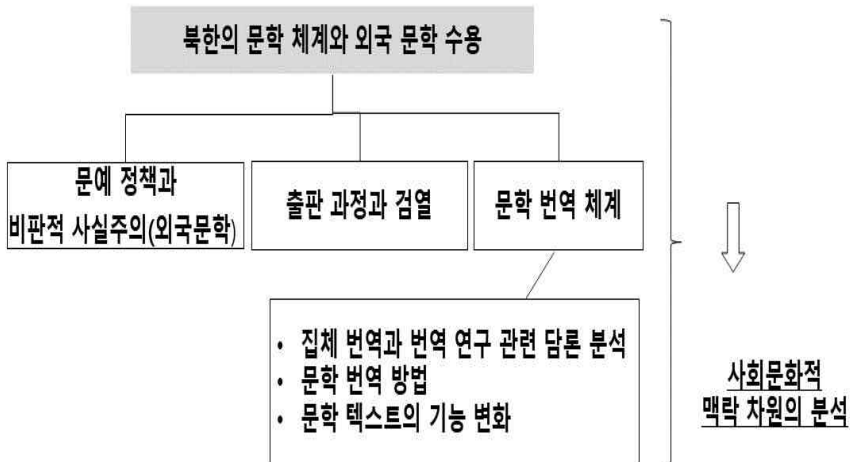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언어는 그 언어가 속한 사회의 시공간적 역사와 문화, 이데올로기의 총체적인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는 해당 언어사용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내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와 언어사용자 사이의 내재하는 본질적인 관계성으로 인해, 하나의 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또 다른 언어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일대일 등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원천텍스트의 고유한 언어적 형태와 의미, 기능은 번역이라는 언어 문화적 접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형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 문화에서 목표로 하는 수용 대상이나 수용 목적에 따라서 또 한번의 변형에 직면하게 된다. 수용 과정에서 원천텍스트는 목표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체계들과 맞물려 중첩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화 권력 안에서 굴절되고 재생산된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번역된 미국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중심으로 통치 권력과 맞물려 생산된 북한의 문학번역과 수용 양상을 조망하고, 이를 남한에서 번역된 동일한 텍스트와 비교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체계와 번역의 역동적인 관계를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분석텍스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90년대 후반 반미·반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던 시기에 북한에 수용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원천텍스트 *Gone With The Wind*는 출판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대중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시대에 따라 사회의 내러티브가 변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미국의 문학체계에서 불안정한 위치를 보인다. 남한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50년대 처음 번역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재번역·재출판되고 있지만, 텍스트 평가와 문학선집의 수록 여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변하고 있어서 미국의 원천텍스트와 북한의 목표텍스트와 비교대조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에 적용할 번역 이론의 토대로서 페르메르(Hans Vermeer)의 스키포스 이론(skopos theory)과 라이스(Katharina Reiss)의 텍스트 유형론, 베이커(Mona Baker)의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 르페브르(André Lefevre)의 굴절 개념(refraction)을 소개한다. 논문의 이해를 위해 전체적인 구성을 <그림 1>로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북한의 특수한 번역 환경을 조망하고, 문학 체계로 한 단계 좁혀서 결텍스트 분석을 통해 *Gone With the Wind*의 수용 방식을 다루며, 텍스트 차원으로 좁혀서 지배담론에 의한 굴절 현상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로 진행해 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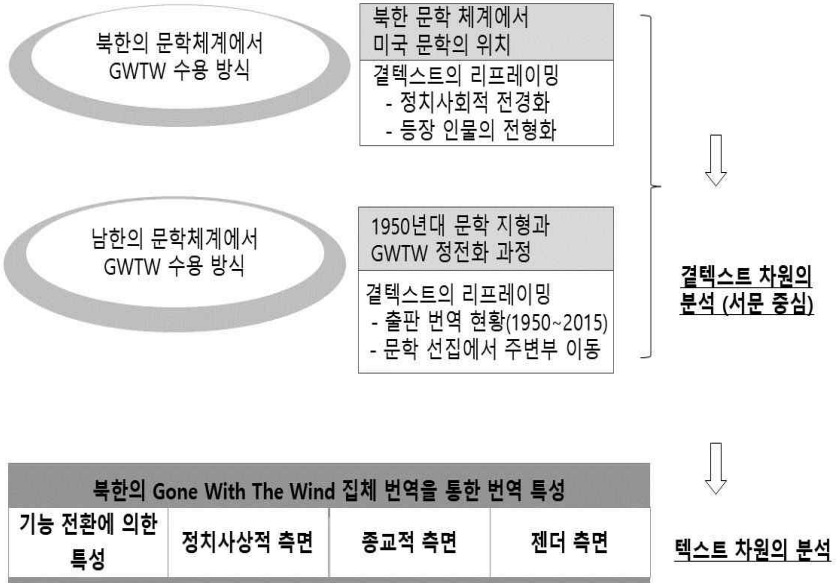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3. 연구 결과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주요 보도 매체이자 사상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1990년대 북한에 수용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으로 상징되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베이커는 원천 문화와 목표 문화 사이의 역학관계는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이 번역 내러티브의 변형과 조작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번역문학에는 번역자가 아닌 별도의 서문 저자가 특정한 프레임으로 텍스트를 읽도록 유도한다. 소설의 역사적 배경이었던 남북전쟁은 약탈자의 역사로 재구성되었으며, 소설 속 인물들은 사회적 계급의 상징물로서 자본주의 전형 혹은 봉건 사회의 전형으로 리프레이밍되었다. 여기에 북한의 모든 출판물에는 출판 목적과 관련된 김일성 교시가 제시되는 바, 서문에 수록된 교시는 텍스트를 이중으로 리프레이밍하는 효과를 갖

는다. 남북한에서 번역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서문 비교는 동일한 텍스트가 서로 다른 문화권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리프레이밍되는 현상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북한의 서문은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문화권에 수용되면서 지배 권력에 의해 리프레이밍되는 현상을 보인다. 남한의 서문은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미국 문화와 문학을 적극 수용하던 시기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단시간에 정전에 위치하였지만, 이후로 고급문학의 위상에서 밀려나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원천텍스트가 원천 문학체계에서 겪는 위상의 변화 양상과 비슷한 궤를 그리는 것으로, 문학선집에서 배제되고 문학체계에서도 주변부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르페브르는 목표텍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 외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고, 원천텍스트가 목표문화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프리즘을 통해 일정한 스펙트럼으로 굴절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권력에 초점을 맞춘다. 번역 출판 검열에 전적으로 당이 개입하는 북한의 번역 과정은 르페브르가 지적한 권력기관에 의해 굴절이 발생하는 문학 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북한의 번역은 정치와 종교, 젠더, 텍스트 기능 측면에서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데, 이는 북한 체제의 통치 담론과 연결된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역사를 부각시키고, 미제 타도라는 공적 내러티브가 번역자의 목소리로 개입되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삭제 또는 타 종교 용어와 혼용하여 종교란 왜곡된 신념이라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젠더 측면에서는 원천텍스트에 내재된 남녀불평등한 시각을 비판하면서도 남성중심의 성차별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텍스트 기능 차원에서는 수용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이 추가되거나 수용자의 반응을 자극하는 비속어 사용과 시청각적 효과를 위한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들 현상은 통치 담론 안에서 서로 맞물린다. 반미·반제 이데올로기는 체제의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며, 기독교는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론과 부딪힌다. 신적 존재인 김일성을 어버이로 섬기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표방하면서 북한은 체제 수립의 근간이었던 사회주의와 가부장체제의 유교주의가 부딪힌다. 기능 전환에 따른 번역 굴절 현상도 통치담론을 전달하는 보도매체로서 기능하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비유적 표현과 시청각적 효과, 정서적 자극은 작용텍스트 가운데 설교문에 해당하는 화법으

로 북한의 통치 담론이 종교성을 갖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이스의 텍스트 기능에 따른 텍스트 유형에 적용해보면, 북한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사상교육을 수단으로서 작용텍스트에 가깝다. 문학번역임에도 굴절 현상이 크게 일어난 이유도 텍스트 기능 전환에 있다. 라이스는 텍스트 유형에 내재된 기능적 등가를 실현하기 위해 유형별 번역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북한의 번역은 텍스트 기능조차 수용되는 사회문화적 체계의 목적에 따라 굴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굴절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관계에서 역추적하면서 가정한 전제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반미·반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으로 굴절이 크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북한 사회도 시대별로 여러 사회문화적 체계와 담론이 중첩되어 있으며, 고착화되지 않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젠더 측면에서 사회주의보다 유교주의의 영향으로 더 보수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과 텍스트의 기능 차원에서의 전환 양상은 번역학 관점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결과라 하겠다. 다만 본 연구는 번역 연구에서 북한의 번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첫 사례로서, 선행 연구와 분석 자료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되었기에, 분석과 해석의 한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또한 비교군으로 제시한 남한의 번역도 두 권에 불과하여 텍스트 한 권을 둘러싼 번역 현상을 사회 전체의 현상으로 일반화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향후에 분석이나 해석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후속 연구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다. 북한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학술지와 문예지를 중심으로 번역의 실제에서 이론으로 담론이 확장되고 있으며, 외국문학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는 바, 북한의 번역문학과 번역문화에 대한 향후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경식. (2007). 『북한의 독문학 연구』 『괴테연구』 20: 115-137.
- 김병로. (2000).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 김선영. (2012). 『번역의 문화편향성과 번역비평의 새로운 모색』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성수. (2009). 『사회주의리얼리즘에서 ‘주체사실주의’로 변모』 『민족21』 52-54.
- 김소정. (2010). 『번역과 굴절: 『영클톰즈캐빈(Uncle Tom's Cabin)』의 중국적 재구성』 『중語 中文學』 46: 129-152.
- 김순미. (2013).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번역학연구』 14(2): 65-102.
- 김영희. (2001). 『북한 영문학 서설』 『안과 밖』 11: 9-16.
- 김용병·장미진·이창경·임형재. (1999). 『북한의 국영 출판체제와 남북한 출판물교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재웅. (2009). 『북한의 논리를 통해 재구성된 미국의 상(1945~1950)』 『한국 사학보』 37: 299-344.
- 김중희. (2012). 『북한문학의 심층적 이해』 서울: 국학자료원.
- 도해자. (2013). 『북한에서 ‘근대’영문학을 보는 시각』 『영미연구』 29: 45-70.
- 박영자. (2017). 『북한 여자 :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 압스트롱 찰스. (2005). 『가족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종교』 『대중독재 2』 김지혜역 서울: 책세상, 168-169.
- 오오무라 마스오. (2001).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운동주와 한국문학』 서울: 소 명출판, 350-365.
- 이영미. (2012). 『북한 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이지영. (2016). 『문학번역의 결텍스트 리프레이밍』 『번역학연구』 17(5): 201-232.
- 임옥규. (2015). 『특집1: 보편과 특수로서의 북한 문학예술, 그 중층적 독해의 가능성: 북한에 서의 남한, 남한에서의 북한 문학연구 -타자화된 시선들-』 『반교어문연구』 41: 127-156.
- 전영선. (2002).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 서울: 영락.
- 주성하. (2010).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서울: 기파랑.
- 주준희. (1996). 『북한 정치의 종교성』 『한국정치학회보』 29(4): 393-420.
- 지영래·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번역학연구』 11(3): 247-276.
- 최경희·홍유미. (2001). 『북한의 셰익스피어·셰익스피어 비평과 번역본 점검을 중심으로』 『안과 밖』 11: 37-58.
- 크로닌, 마이클. (2010). 『번역과 정체성』 김용규·황혜령 역. 서울: 동인.
- 통일부. (2018). 『2018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
- 홍지선. (2013). 『북한문학교육연구: 『국어문학』과 『문학』 교과서 비교 고찰』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분석텍스트]

- 박시환 역. (1999).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박시환 역. (200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박시환 역. (200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송관식·이병우 역. (1989).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서울: 범우사.
안정효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상』 파주: 열린책들.
안정효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 파주: 열린책들.
안정효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 파주: 열린책들.
양원달 역. (1956).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서울: 희문사.
장왕록 역. (1975).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서울: 동서출판사.
장왕록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I』 서울: 동서출판사.
장왕록 역. (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II』 서울: 동서출판사.
장왕록·장영희. (1992).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서울: 교원출판사.
장진학 역. (2015).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 서울: 삼성출판사.
Mitchell, Margaret. (1936). *Gone With the Wind*. N.Y.: Macmillan.

[북한 자료]

- 김용선. (2006). 「문학예술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의 특성(7. 23) 『2006년 3분기 대내편 노동신문 논설집』 2006.10. 국가정보원.
김은희. (2011). 「『자료』씩어빠진 미국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 장편소설 도금시대」 『조선문학』 7: 78-80.
김정호. (2011). 「미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조선문학』 2011(10): 78-80.
김진명. (2004). 「영조번역의 몇가지 문제」 『교육신문사』 2004(1): 47.
김혜순. (2003). 「영어성구번역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49(3): 73-77.
리기도. (1996).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
리혁철. (2016). 「번역학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62(2): 76-79.
문상민·박치원·한경수·황경희. (1958). 『서구라파 문학 개관』 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박성환. (2008). 「조영번역에서 번역문의 정확성과 질을 결정하는 역자의 책임성과 능력」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54(2): 95-98.
백철. (2004). 「영조번역에서 본문의 의미해석과정에 영향을 주는 언어외적요인들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50(4): 81-85.
변철우. (2000). 「외국어의 관용구를 우리말답게 번역하려면」 『조선어문』 2000(1): 46-4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2). 『문학예술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서명선. (2003). 「번역공정과 원리에 기초한 영조번역지도방법」 『교육신문사』 1: 113.
손영남. (2015). 「번역기준과 기능등가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61(2): 71-74.
윤남. (2006).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어성구의 본질과 그 특성」 52(4) 『김일성종합대학학

- 보: 어문학』 52(4): 102-106.
- 정성숙. (2000). 「영어성구적문장의 번역에서 우리말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기 위한 문제」 『조선어문』 2000(2): 38-40.
- 조영빈. (2015). 「번역교수의 목표와 번역능력습득에 대한 이론적분석」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61(1): 100-103.
- 최인숙. (2004). 「영조번역에서 풍부한 우리말 어휘를 적극 활용해쓰자」 『문화어학습』 2004(1)
- 한룡덕. (1995). 「소설번역에서 묘사의 형상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어구사문제」 『문화어학습』 1995(2): 21-22.
- 현중호 외. (1997). 『문학(고등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N.Y.: Routledge.
- Bassnett, Susan. (2007). Culture and Translation. In: P.Kuhiwczak & K. Littau(Ed) *A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3-23.
- Even-Zohar, Itamar. (1990). Polysystem Studies. *Thematic issue of Poetics Today* 11(1): 1~268.
- Fawcett, Peter. (1998). Ideology and Translation. In: M. Baker(Ed), *Routledge Encyclopa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NY: Routledge, 106-111.
- Genette, Gérard. (198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J.E. Lew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nzler, Edwin. (2001).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Haag, John. (1989). Gone with the wind in Nazi Germany. *Georgia Historical quarterly* 73(2): 278-304.
- Hermans, Theo. (1999). *Translation in Systems. Descriptive and System-Oriented.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Holmes, James. (1972).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L.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NY:Routledge, 172-185.
- Inggis, J. (2015). Translation and Transformation: English-Language Children's Literature, In (Soviet) Russian Guise. *International Research in Children's Literature*, 8(1): 1-16.
- Lefevere, Andre. (1982). Mother Courage's Cucumbers: Text, system and refraction in a theory of literature, In: L. Venuti(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NY: Routledge, 233-249.
- Lefevere, Andre.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NY: Routledge.
- Munday, Jeremy. (2007). Translation and Ideology: A Textual Approach. *The Translator* 13(2): 195-217.
- Nicolai Volland. (2008). Translating the Socialist State: Cultural Exchange, National Identity, and the Socialist World in the Early PRC, Twentieth-Century China 33: 2, 51-72, DOI: 10.1179/tcc.2008.33.2.51.
- Nord, Christina. (1997). *Translating as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 Reiss, Katharina. (1971). Type, Kind and Individuality of Text: Decision Making in Translation. In: L.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NY:Routledge, 160-171.
- Robinson, Douglas. (1997). *Western Translation Theory from Herodotus to Nietzsche*. Manchester:

St Jerome.

- Sheley, Erin. (2013). Gone with the Wind and the Trauma of Lost Sovereignty. *Southern Literary Journal* 45 (2): 1-18.
- Shih, Chung-ling. (2010). Ideological Interference in Translation: Strategies of Translating Cultural References, In *Translation Journal*, 14 (3) <http://translationjournal.net/journal/53culture.htm>
- Somers, Margaret R.& Gibson, Gloria D. (1994). Reclaiming the Epistemological “Other”: Narrative and the Social Constitution of Identity, in (ed) *Craig Calhoun Reworking Class*, Ithaca NY&London: Cornell UP, 73-105.
- Summers, Caroline. (2013). What Remains: The Institutional Reframing of Authorship in Translation Peritexts. (ed) *Valerie Pellatt, Text, Extratext, Metatext and Paratext in Translation*,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9-32.
- Tymoczko, Maria. (2014).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 London&N.Y.: Routledge.
- Vermeer, Hans J. (1989).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 Action. (tr) Chesterman. A. In: L.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NY: Routledge, 221-232.
- Zhao Baohe. (2012). A Comparative Study of Two Chinese Versions of *Gone with the wind* from a Social-Cultural Perspective. *Studies in Literature Language* 4(2): 59-64.

본 초록은 ‘이은정(2019). 북한 문학번역과 수용의 프레임링 연구: *Gone With the Wind*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Author’s email address

visleel@hanmail.net

About the author

Eunjung Lee is a practitioner, teacher and researcher in translation who received her Ph.D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 is translation in North Korea, translation ideology and history.

www.kci.go.kr